

향찰 쉽게 이해하기

세종이 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까지 우리는 ‘글’이 없었다
(지금과는 꽤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우리 ‘말’은 있었다)

따라서 가까운 중국에서 글자를 빌려야 했다
하지만 한자는 쉽지 않았다

龍 수다스러울 절
號 범 발톱 자국 곱
鬱 막힐 울
鵲 뻐꾸기 짙
鷓 도요새 흘

1. 일단 어렵게 생겼다
2. 심지어 모양, 뜻,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요즘 유튜브에 아이돌의 노래를 검색하면
세 가지 자막이 함께 나온다

신경 쓴 적 없지 그냥 그러려니 난 그저 여전히

singyeong sseun jeog eobsji geunyang geuleolyeoni nan geujeo yeojeonhi

I don't care. I just don't care. I'm just still...

출처 : 유튜브 Jaeguchi (구독자 449만명)
노래 : D.O - I'm gonna love you (feat. Wonstein)

특히 두 번째 자막을 주목하자

외국 팬들을 위한 배려로
한글을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표기했다

그런데 향찰이 이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돌을 던지다' 라는 문장의 예시를 보자

모양	石	乙	投	多
뜻	돌	새	던지다	많다
소리	석	을	투	다

지금은 어렵지 않게 '石乙投多'라는 한자를
소리 부분으로 '석을투다'라고 읽겠지만, 당시에는 결코 쉽지 않았다

이제 k-pop을 사랑하는 외국팬들의 입장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문장을 보자

모양	나	는	너	를	사	랑	해
뜻	I		you		love		
소리	na	neun	neo	reul	sa	rang	hae

우리가 팝송을 따라 부르지만 의미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글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글자를 발음할 수만 있으면 된다

모양	石	乙	投	多
뜻	돌	새	던지다	많다
소리	석	을	투	다

다만 향찰은
뜻 부분과 소리 부분을 모두 빌려서 사용해 발음했다는 차이가 있다

실질적·의미적 (실질형태소) 부분은 뜻으로 (훈독)
문법적·형식적 (형식형태소) 부분은 소리로 (음독)

그래서 ‘石乙投多’ 라고 쓰고
‘돌을 던지다’ 라고 읽었던 것이다

현대에서 적용할 때 100퍼센트 딱 맞는 법칙은 아니다
하지만 향찰의 많은 부분은 이런 방식을 따른다